

보일러 소비효율 일원화, 실을 막아라

고효율인증제외, 인센티브 마련 관건 에관공 검토중인 'e-챔프' 서 보조금 확보할 수도

가스보일러의 소비효율 일원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가 실익 계산을 위한 주판알 튕기기에 한창이다.

현재는 일반 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적용받고 있는데 두 보일러를 통합한 단일 적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 작업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소비효율 등급이 일원화될 경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상에서 보일러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관련 업계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해당되는 효율제도

우리나라는 기기(Appliances)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 3가지 효율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을 부착하고 최저 소비효율 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포함한 가전기기, 조명기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20개 제품에 현재 적용되고 있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효율 이상 제품을 인증해주는 효율 보증제도다. 1996년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인증제품에 고효율 기자재마크 부착과 고효율 에너지기자

재 인증서를 발급하며 펌프, 보일러, 조명기기 등 37개 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에서만 20개 제품에 1만7000모델이 등록돼 있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제도에서는 37개 제품에 3300여 모델이 인증돼 있다. 하지만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는 이들 두 제도 모두를 적용받고 있고 소비효율 등급 일원화를 계기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검토중이다.

●대기전력·중화장치 의무화 될 수도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비효율등급 일원화 여부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오는 2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등급 일원화로 방향이 잡힐 경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콘덴싱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 높은 효



에관공, 가스안전공사, 보일러 제조업체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소비효율 일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1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을 등급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곧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가스안전공사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월중 일원화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리고 약 2년간의 예정 고시를 거쳐 2010년경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효율등급 일원화와 함께 보일러에 대기전력을 적용하는 것과 콘덴싱 보일러에 중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가스보일러 영업 환경이 반드시 유리해 지는 것만은 아니다.

대기전력이나 중화장치 부착이 보일러 제작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일단 불리할 수 있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그렇다.

정부는 고효율기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에너지소비효율제도에 근거해 1등급 제품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에너지절약마크제품)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조달청 우선구매,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특정대상 건물 신축시 의무사용,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시험수수료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소비효율이 일원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가정용 가스 보일러는 고효율 인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다수 업체들이 요구해온 것 처럼 일반 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간의 소비효율 일원화가 이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콘덴싱 보일러의 소비가 촉진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고효율 인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소비효율이 일원화 될 경우 정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효율 인증 대상에 포함된 현재도 보일러의 경우 별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소비효율등급이 일원화되면서 아예 고효율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원 받을 기회조차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일러 제작사들도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A제조업체 관계자는 “고효율 인증 대상에서 보일러가 제외되면 다양한 정부 혜택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굳이 소비효율 일원화만 주장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애초에 소비효율 일원화를 주장할 때와는 전혀 상반된 의견이다.

B제조업체 관계자도 “보일러 소비효율 일원화가 진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높은 효율등급 획득이 관건

하지만 소비효율등급 제도 아래서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에 근거해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받고 있는 조명의 경우 인증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비효율등급만 적용받게 되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물론 소비효율등급제도 아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효율이 높은 1등급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외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은 소비효율등급 제도 아래서도 고효율을 권장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에 대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효율등급에서 1등급을 얻은 대형제품, 예를 들어 냉장고나 에어컨과 같이 용량이 큰 제품에 한해 소비자들에게 설치비를 일정부분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가칭 ‘e-챔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제조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조업체 측에서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1등급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제품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e-챔프’는 아직 검토 초기단계이고 설령 산자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가정용 가스보일러가 포함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가정용 가스보일러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1등급에 선정된 콘덴싱보일러에 응축수 배출 같은 환경 위해 논란이 일고 있어 상당한 검증 과정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보일러 업계가 희망하던 가정용 가스 보일러 소비효율 등급 일원화가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과 각종 혜택을 이끌어 내며 핑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보일러 업계가 골몰하고 있다.